

19세기 말 애니 베어드의 문서선교에 대한 관심과 <셋별전>

허순우*

<차례>

1. 서론
2. 개신교의 문서선교와 애니 베어드의 선교활동
3. 소설 형식의 문서선교 전도지 <셋별전>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말인 1891년 한국을 방문하여 1916년 사망할 때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애니 베어드의 문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관심을 토대로 하여 창작된 그녀의 초기 문서선교 전도지, 소설 <셋별전>을 살펴본 것이다. 애니 베어드는 남편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북장로회 소속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 1891년부터 1897년까지는 부산, 대구 지역 선교에 힘을 쏟았고, 1897년 이후로는 평양으로 옮겨가 숭실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선교에 힘을 쏟았다. 애니 베어드는 순회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가정선교와 더불어 문서선교, 교육선교 활동을 했다. 특히 한국에 온 초기부터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그 결과 한국어 학습 초보자를 위한 문법서, 한국어로 된 짧은 소설 형태의 전도지 등을 출간하며 문서선교에 주력했는데, 그 모습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문서선교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애니 베어드는 한국에 온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한글 소설 <셋별전>을 창작했다. 이 작품은 신앙의 황무지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셋별이라는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문답체 소설 형식을 취해 독자들이 쉽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부교수

전도지의 일종이다. 이 소설은 일방적인 교리의 설명, 설교가 아니라 독자들이 경험할 만한 상황을 제시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면서도 회생과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부차적인 수사나 부연 없이 간명하게 서사를 이끌어 가면서도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논문 3장에서, 애니 베어드가 전도를 위해 소설을 창작하며 취한 글쓰기 기법과 글의 내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간 <셋별전>은 『Daybreak in Korea』, 『고영규전』 등 훗날 애니 베어드가 창작한 작품들의 초기형태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셋별전>이 단지 훗날 탄생할 작품들의 예비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문서선교의 일선에서 과급력 있는 선교 문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애니 베어드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 짧은 분량이지만 구원의 의미, 기도하는 법, 찬미하는 법, 희생의 의미 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문학적 형식을 차용한 초기 전도문서라는 점 등에서 충분히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 개신교, 문서선교, 애니 베어드, 셋별전, 전도문서

1. 서론

한국 기독교회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는 1885년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젤러, 미국 북감리회의 스크랜턴, 미국 북장로회의 헤론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¹⁾²⁾ 1885년 이전

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409~410쪽; 옥성득, 『한국기독교 형성사』, 새물결플러스, 2020, 41쪽.

2) “한국 개신교에서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보낸 알렌이 한국에 입국하는 해인 1884년을 한국교회의 선교원년으로 삼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먼저 한글 성경 번역사업이 시작되고, 그와 함께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라고 하여 1885년 이전부터 한국선교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기도 한다.(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1 조직·성장과 수난』, 대한성서공회, 1993, 3쪽.)

에도 한반도에서 비공식적인 개신교 선교 활동은 이루어졌다. 강화도조약(1876)과 조미수호조약(1882)이 체결된 이후 제물포, 부산항 등지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하 선교사)이 한국인과 접촉하여 비공식적인 선교활동을 한 것이다.³⁾ 그러나 각종 조약 체결 이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개신교 선교가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갑신정변이 계기가 되어 의료 선교사 알렌이 고종의 시의가 되었고 또 김용균, 박영효와 같은 개화파 인사들이 한국의 정치 개혁과 개화, 부강에 목적을 두고 개신교의 한반도 선교 필요성을 촉구하고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⁴⁾

한국의 개화파들이 정치 개혁과 개화, 부강 등의 현실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신교의 국내 유입을 촉구했다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선교사들은 1, 2차 대 각성 운동을 비롯한 19세기 초반의 기독교 부흥 운동에 힘입어 해외 선교를 결심하고 실행했다.⁵⁾ 악령으로 가득 찬 신앙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려는 종교적 사명감을 지니고 기독교 불모지에 발을 내디뎠는데,⁶⁾ 한국도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당시 동양학 연구자이자 목사인 그리피스는 저서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 신앙의 불모지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악귀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묘사했다.⁷⁾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은자의 나라 한국』은 미지의 세계인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지침서였다.⁸⁾ 그렇기 때문에 이러

3) 박용규(2018), 앞의 책, 393~394쪽 참조.

4) 옥성득(2020), 앞의 책, 219쪽 참조; 박용규(2018), 앞의 책, 302~308, 413~432쪽 참조.

5) 박용규(2018), 앞의 책, 308~312쪽 참조.

6) 옥성득(2020), 앞의 책, 63~64쪽 참조.

7) W.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신복룡 옮김, 평민사, 1985, 552~553쪽 참조.

8) “24년 동안 이 책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외에도 구미(歐美) 각국의

한 자료에 의존해 형성된 외국인들의 한국 인식은 그리피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나 외국인들은 종종 한국을 비위생적이고 차별에 무감각하며 미신 숭배가 만연해있는 나라로 묘사하기도 했다.⁹⁾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의 불모지에서 악귀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신을 숭배하며 비위생적으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선교 메시지를, 어떠한 글쓰기 방식으로 전달해야겠다고 판단했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를 외국인 선교사가 문서선교를 위해 창작한 소설 〈셋별전〉에서 찾아보려 한다.

〈셋별전〉은 19세기 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선교사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이하 애니 베어드)가 창작했다. 애니 베어드의 선교와 문학 활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¹⁰⁾은 그녀의

학자와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有用)하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韓國)을 찾아 오는 선교사들이나 새로운 입국자들에게도 초판(初版)에 수록된 일반적인 정보를 읽힘으로써 이 책은 한국(韓國) 내에서도 공헌을 하고 있다.”(W.E. 그리피스(1985), 앞의 책, 16쪽.)

9) 예를 들어,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하여 한국을 네 차례 방문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7년 출간한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중 ‘서울의 입지 조건과 구조’를 다룬 글에서 “베이징을 보기 전까지는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기술했다. 또 ‘한국의 무속신앙’에 관한 장에서는 “한국인은 현재의 시간을 항상 공포에 떨면서 보낸다. 한국의 가택 어디에서건 간에 귀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서술했다.(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인화 옮김, 살림, 1994, 52, 458쪽.)

10) 김경완, 『고영규전 연구』, 『온지논총』 1, 온지학회, 1995, 421~263쪽; 이길연, 『근대적 자아의 확립과 가정상의 모색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 한국평화연구학회, 2004, 304~325쪽; 이현주, 『보배와 이화: 애니 베어드의 『한국의 새벽』과 윌리엄 노블의 『이화: 한국 이야기』에 나타난 두 여주인공 비교』, 『신학과 세계』 62, 감리교신학대학교, 2008, 472~505쪽; 劉惠瑩, 『기독교와 한국사상의 근대성-고영규전에 나타난 결혼관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221~245쪽; 민대홍, 『기독교의 문화 변혁으로 본 애니 베어드의 소설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212쪽; 곽승숙, 『애니 베어드

작품 『고영규전』, 『*Daybreak in Korea*』 등에 주목하였으므로 <셋별전>이나 <장자노인론> 등은 간략히 소개되었다.¹¹⁾ 그러나 <셋별전>은 애니 베어드가 한국에 정착한 초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들보다 앞서 창작한 것으로, 한글로 썼으며,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독교 문서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면이 있고 사적(史的)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디딤돌 삼아, 애니 베어드의 초기 문서 선교 활동을 살펴보고 더불어 기독교 전도문서 <셋별전>의 특징과 위상에 대한 논의를 한 걸음 진척시켜 보려 한다.

신소설 연구 -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39~159쪽; 서신혜, 『<고영규전>의 서술 방식과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35~160쪽; 박보경,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2017, 283~308쪽; 김성연, 『근대초기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253~290쪽; 김사랑,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1864-1916)의 선교사역과 음악』, 『흥·樂·學』, 한국음악학학회, 2019, 61~95쪽 등.

- 11) 『고영규전』, 『*Daybreak in Korea*』 등을 분석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언급한 것 외에 <셋별전>에 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작품 전반에 대해 소개한 것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이 현대역하여 출간한 『셋별전』(숭실대학교출판국, 2014.)에 실린 장경남의 ‘자료 해제’이다. 해제에서는 작품의 줄거리, 핵심 갈등, 문체, 특징 등을 소개했다. 당시 인기 있고 읽기 쉬운 대중 독서물인 소설 형식을 취해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고,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전하려 했으며, 성경과 찬송을 인용하고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몇몇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제 글의 속상 상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심사의견 중 『셋별전』 해제자의 성명을 노출하라는 것이 있었다. 해당 서적은 <셋별전> 영인 및 현대역 자료집으로 본 논문에서는 “애니 베어드, 『셋별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학예팀 역,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4.” 형식의 출처 표기를 하였다. 본문과 해제를 모두 해당 서적에서 인용할 때 “애니 베어드(2014)” 형식을 취하는 게 동일 자료에 대한 표기의 혼란을 더는 것이라 생각하여 본 각주에서 해제자의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이하 해제 등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힐 때는 “애니 베어드(2014)” 형식을 취하되 쪽수를 적는 것으로 하였다.)

2. 개신교의 문서선교와 애니 베어드의 선교활동

1)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문서'를 활용한 개신교의 선교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불모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한 이들이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전도할 때 봉착했던 난관 가운데 하나가 언어문제였다. 기초적인 표현들을 어느 정도 학습한 후 선교지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언어실력으로 종교에 관한 깊이 있는 주제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 나라에 올 때 가진 포부를 실현할 것 같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력을 다하여 한인들의 인심을 사는 일과 동시에 말을 익히는 일밖에 별다른 일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인심을 사는 것과 말을 익히는 일은 그 때의 형편으로서는 어려웠다. (중략) 또 그 당시 어떻게 말을 빨리 배울 수가 있었겠는가? 책도 없고 선생다운 선생도 없고 통역이란 간단한 단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명사의 어휘를 배워 사용하는 데는 그런대로 지낼 수 있었지만 동사의 사용에는 손짓 발짓으로 시늉을 하며 겨우 알게 하였는데, 정말로 우습다기보다는 땀을 빼는 일도 있었다.¹²⁾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아서 선교에 대한 애초의 포부는 실현할 수 없을 듯했다는 스크랜튼의 회고에도 드러나듯 언어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현장감 있는 언어로 생생하게 뜻을 전달하고 설교를 하여 상대방의 회심(回心)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막 해당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선교사들이 즉석에서 현지어로 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한국어를 잘 한다고 인정받던 아펜젤러도 “1887년 성탄절 설교문을 직접 쓸 수 없어 ‘생각을 권서 최씨에게 말해 주면 그가 그것을 적당한 한국말로

12)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이만열 외(1993), 앞의 책, 192쪽에서 재인용)

표현해 주었고, 그 원고를 들고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했”¹³⁾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구어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잘 정리된 문서였을 것이다.

20세기 중엽에 미국 감리교 문서전도부 총무인 도리스 해즈는 “기독교 문서는 곧 전도 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문서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다.”¹⁵⁾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선교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19세기부터 전도의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었더한사람은 물론전도하고자하는 마음은 간절하되 극무에결을을 었지못하기도하고 혹은원방에 있는 우인이나친척의게 전도하고자하되 첫재는갈수도업고 또는편지로는 그자세한말곳 구원의도리를다적을수도업고 또는전도하고자하는 마음은 간절하되 구원에대한 도리를충분히 듯는사람으로하여곰 이해하도록 할수업스니유감으로 지내는형편에 있는사람이 적지아니할줄노이는바이다. 그러나 이제조훈방법과 조훈기회는잇나니 방금출판부에서 발행한 『기독교의진수』는 요한복음삼장십육절을신자나 미신자나 알아듣기쉽도록 통속적으로 구원의도리를 해설한책자인대 선한문과 순조선문이종이 잇스니 갑도그리 빗짜지아니한즉 십부나백부씩사서두고 전도하고 심한사람의게 한권씩보내는 것 이엇지 조훈방법이아니리오 하박국십이장이절에 “이묵시를 판에 밝히써서 넘는자로하여금급히가면서도보게하라” 하엿스니 참으로전도의의무를깨닫는자는 영혼을사랑하는자는 이문서전도의 방법을 의지하여 넓히 구원의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란다.¹⁶⁾

13) 이만열 외(1993), 앞의 책, 195~196쪽.

14) 아펜젤러는 1885년 4월부터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어학실력이 좋았다고 평가받았던 아펜젤러였지만 한국에 거주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구어로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5) 도리스 해즈, 『기독교 문서는 전도의 방편』, 『새가정』 11-6, 새가정사, 1964, 22쪽.

16) 이명직, 『독서와 문서전도』, 『활천』 9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30, 3쪽.

바쁜 시간을 쪼개 멀리 있는 지인에게 전도하는 것도, 또 조리 있게 구원의 도리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신자나 비신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통속적으로 창작된 『기독교의 진수』라는 신간(新刊)을 활용하여 ‘문서전도’를 하라는 인용문의 권유는 문서선교가 지닌 효율성을 잘 드러내준다.

전도하기 용이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글과 더불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자료들을 물리적으로 생산하는 여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 단체는 개신교 선교 과정에서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¹⁷⁾한다고 평가되는 인쇄, 출판소를 한국에도 설립했다. 1890년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하여 세운 ‘조선성교서회(이하 조선성교서회)’¹⁸⁾, 1896년에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라는 이름으로 설립 공인을 받은 ‘대한성서공회’¹⁹⁾ 등이 그것이다. 이 둘 가운데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번역, 배포사업에 집중했고, ‘조선성교서회’는 전도문서와 소책자를 발행하면서 “종교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서적”을 발행하고²⁰⁾ 중국 서회의 전도문서를 한국에 전파하기도 했다.²¹⁾

이렇게 선교사들이 유입되고 선교의 한 방편인 문서선교를 위해 서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던 때가 19세기 말인데, 이 당시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 부부도 부족한 한국어 소통능력을 보완할 하나의 방편인 문서

17) 홍승표, 『동아시아 기독교 출판의 제 관계와 동향 -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 개신교 출판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9, 한국교회사학회, 2018, 117쪽.

18) 1890년에 설립된 ‘조선성교서회’는 ‘대한성교서회’, ‘대한예수교서회’, ‘조선예수교서회’, ‘조선기독교서회’ 등으로도 불렸다.(한명근,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예수교서회의 문서운동』(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도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5, 6~7쪽, 105~106쪽 참조.) 이고은,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역사(1890-1919) 재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5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89~90쪽 참조.

19) 이만열(1993), 앞의 책, 464쪽 참조.

20) 이고은(2020), 앞의 논문, 93쪽, 98쪽.

21) 이고은(2020), 앞의 논문, 90쪽, 118쪽.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²²⁾ 선교사이자 송실 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베어드 부부에 관해서는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주축이 되어 2011년부터 베어드 자료집 및 베어드 총서를 발간하였고, 2000년대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의 선교 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²³⁾ 특히 “식민지 조선에 체류한 여성 선교사의 서사물을 분

22)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 부부의 언어 학습과 문서 출판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실제 행한 선교활동과 더불어 그들이 남긴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진도는 참 늦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는 몇 마디의 한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놀라는 동료들보다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이 나라에 나보다 더 오래 머물러서, 처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책 한 권의 개요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면 확신하건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초보자에게 훨씬 좋은 책이 될 것이다.”(윌리엄 베어드, 『송실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일기』, 이상규 옮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23쪽.)

이 기록은 윌리엄 베어드가 한국에 온 후 1년 4개월이 지난 1892년 5월 23일에 쓴 일기의 한 부분이다.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실력에 대해 답답함을 표하는 부분인데, 그가 한국어 능력을 문제 삼은 것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주요 수단이 언어임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워 선교에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어법서 등도 편찬했다고 생각한다. 애니 베어드도 한국어 초보자를 위한 어법서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1896)를 편찬했다.

23) 애니 베어드에 관한 연구는 서론에서 살펴보았다. 애니 베어드 관련 자료집으로는 『셋별전』과 『장자로인론』 외에 *Inside Views of Mission Life*(1913)를 번역한 애니 베어드의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성신형 외 역, 도서출판 선인, 2019.)을, 윌리엄 베어드 관련 자료집으로는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1, 2(김용진 옮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송실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일기』(2013.); 『신학지남으로 보는 윌리엄 베어드의 신학세계』(장경남 역,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4.) 등을 들 수 있다. 윌리엄 베어드 관련 연구 논문으로는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1880-1900)』, 『한국기독교와 역사』 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45~177쪽; 조경현, 『한국 초기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의 뿌리』, 『교회사학』 6-1, 한국기독교교회사학회, 2007, 205~260쪽; 변창욱,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방법과 교육선교 정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1, 한국기독교학회, 2011, 317~340쪽; 이선호 외,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지침서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7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3, 275~303쪽; 성신형,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선교에 대한 연구』, 『복음과 선교』 36, 한국복음주의선교사학회, 2016, 51~82쪽; 이혜정, 『배위량 선교

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베어드 부인에 집중²⁴⁾된다고 정리되기도 했는데 이는 애니 베어드가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선교사로서 스스로 적극적인 문필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선교 방법 중에서도 문서 선교에 힘을 쏟아 문서 선교 관련 자료를 다수 남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애니 베어드의 저작에 관한 연구는 현재 애니 베어드의 선교 생애에 있어 후반기에 창작된 『고영규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서 선교에 적극 참여했던 애니 베어드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기 작품인 〈새별전〉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애니 베어드의 한국어 학습과 문서 선교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애니 베어드는 선교사 부인의 역할뿐 아니라 스스로를 1인의 선교사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니 베어드가 보여준 선교활동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선교사 ‘부인’이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 어떠한 영역 이상은 침범할 수 없다는 한계보다는 부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교와 더불어 특별한 영역의 선교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롭다. 애니 베어드의 선교 보고서 『*Inside Views of Mission Life*(이하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에는 그녀가 선교사로서 고민했던 문제들, 만났던 사람들, 누렸던 기쁨들이 잘 나타나 있다.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애니 베어드는 미즈 피바디즈 신학교와 하노버

사가 지역사회에 끼친 사회적 영향』, 『신학과 목회』 49, 영남신학대학교, 2018, 359~383쪽; 박삼열, 『내한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의 조선사회에 대한 인식과 선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57~89쪽; 장경남 외, 『송실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의 일기 연구』, 『송실사학』 43, 송실사학회, 2019, 129~153쪽 등을 들 수 있다.

24) 김성연(2015), 앞의 논문, 255쪽.

대학 등에서 수학하였는데, 이때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졸업 후 학생자원운동 집회에서 윌리엄 베어드를 만나 1890년 11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한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1891년 1월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로 지냈다. 1916년 병으로 사망하기까지 애니 베어드는 한국 선교에 헌신하였는데, 1891년부터 1897년까지는 부산과 대구 선교지부를 개척하는 남편 윌리엄 베어드와 동역하며 가정을 통한 증거사역, 사랑방사역을 했고, 1897년 평양으로 이주한 후부터 1916년까지는 문서선교와 교육선교 사역에 주력했다.²⁵⁾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이 연도별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애니 베어드는 선교 초기부터 책이 나오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선교사가 선교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을 것과 더불어 현지 언어를 학습하고 문서로 선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본래 언어 습득에 재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그들의 임무 규정 중 하나인 언어 학습 과정을 마쳤을 때, 언어 습득을 위한 그들의 노력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아주 단순한 경계선이 드러났다. 이런 경계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처음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부터 자신의 사역 내내 끈질기게 지켜낼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새 선교사는 대화에 사용되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다면 매일 몇 분 정도만을 모국어로 된 글을 읽는 데 쓸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해가 지나가는 동안 언어를 공부하면서 단어만 암기하지 말고, 그 단어로 어떤 표현을 만드는지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그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

25) 애니 베어드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정리는 박보경(2017), 앞의 논문, 290~294쪽을 참조하였다.

게 될 것이다. (중략) 기혼이든 미혼이든, 남자든 여자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욕심을 낼 지점이다.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비밀스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경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확고한 결의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된 그 낯선 언어를 자유롭고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욕심 말이다.²⁶⁾

애니 베어드는 선교지 주민들과 같은 언어로 소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위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선교사로 부임하면 초기부터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열심히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하여 좌절하지 말고,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면 문서선교를 통해 “정신적 가뭄”을 피하라고도 조언한다.

어는 누구도 언어 습득의 필요성을 쉽게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이 기간 동안 그 어떤 선교활동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사실, 동양의 언어 습득은 일생일대의 임무로, 우리가 하는 일련의 선교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 습득의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언어를 모르고 선교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적은 수의 단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거리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구절과 기도를 가르칠 수도 있다.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과정이 오히려 유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배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실제적인 접촉에 의해 현지인들의 삶에 익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영혼들로부터 얻는 물줄기와 같은 기

26) 애니 베어드(2019), 앞의 책, 42~43쪽.(번역문을 활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문을 대조하여 수정하였음.)

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상쾌해지고 **정신적 기쁨**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²⁷⁾

애니 베어드의 전도에 대한 열망과 언어습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녀가 출간한 서적의 면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애니 베어드가 출간한 저서로 알려진 것은 한글 번역서 4종과 『창가집』을 포함한 창작 저서 7편인데,²⁸⁾ 그 중 『동물학』, 『식물학』과 같은 번역서는 “신학적 사상에 뿌리를 둔”²⁹⁾ 자연과학 교육 교재로, 이 역시 교육선교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창작 저서 가운데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는 1896년 삼문출판사에서 출판한 애니 베어드의 첫 저서로,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한 회화 입문서”³⁰⁾이자 한국어 문법서³¹⁾이고, <장자노인론>, <셋별전>, 『고영규전』 등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깨달음과 회심의 문제를 교훈적으로 다룬 선교용 한글 소설이다. 그런데 이들 저서 중 교재인 『식물학』 같은 번역서는 애니 베어드가 한

27) 애니 베어드(2019), 앞의 책, 57쪽.

28) 선행연구(김성연(2015), 앞의 논문, 266~267쪽; 애니 베어드(2019), 앞의 책, 16~18쪽 등)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애니 베어드의 저서는 번역서인 『동물학』, 『식물도설』, 『만국통감』 1-5, 『식물학』과 창작서인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장자노인론>, <셋별전>, 『*Daybreak in Korea*』, 『고영규전/부부의 모본』,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창가집』이 있다. 그런데 연구에 따라 최초 출간 연도에 차이를 보이는 저서가 있는데, <장자노인론>과 <셋별전>이 그것이다. 김성연 등은 <장자노인론>과 <셋별전>이 각각 1906년과 1905년에 출간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출판물을 연구한 이혜원은 미국국회도서관, 숭실대학교 도서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장자노인론> 재판이 1897년에, <셋별전> 초판이 1899년에 출간되었다고 정리(이혜원,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대한 재 고찰: 1890-1900년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55, 한국교회사학회, 2020, 506쪽.)하였다.

29) 김성연(2015), 앞의 논문, 268쪽.

30) 김성연(2015), 앞의 논문, 270쪽.

31) 한명근(2015), 앞의 책, 73쪽.

국에 온 지 10여 년 이상이 지난 1900년대 이후 출간되었고 또 중학교 출신 한국인 학생의 도움을 받아 번역, 출간했다는 기록이 있다.³²⁾ 그러나 〈장자노인론〉, 〈셋별전〉은 한국에 온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글로 창작했고 또 특별히 도움을 준 한국인 조사(助師)에 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애니 베어드가 한글 학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현지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여 선교하려 노력했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인가귀도』(1894), 『턴로력정』(1895), 『복음요사』(1896), 『장자노인론』(1897) 등은 대부분 중국의 한문서적을 번역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후 애니 베어드(A. L. A. Baird, 安愛理)의 『고영규전』과 같은 창작물이 등장했고, 선교사들이 교리를 문답식으로 저술한 『감리회문답』(1911)과 같은 문답서를 다수 발행했다.”³³⁾라고 하여 현재까지는 〈장자노인론〉을 중국 서적의 번역으로 보기도 하고, 〈셋별전〉은 조선성교서회 출판의 역사에서 의미 있게 다루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 외국인 선교사가 한글로 창작한 소설이 드문 상황에서 〈셋별전〉 등은 개신교 문서선교의 역사나 한국문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위 인용문에 쓰인바, “언어를 모르고 선교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적은 수의 단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보았던 애니 베어드의 ‘현지 언어를 활용한 문서선교’에 대한 생각이 실천으로 드러난 사례이기 때문이다.

32) 예를 들어 1913년에 출간한 『식물학』에는 서문에 앞서 “이 책은 미국 식물박사 그레 씨의 마련한 거슬 번역하였는데 주후 일천구백구년에 중학 졸업생 안국보(安國補) 씨의 도움을 만히 밧는 중에 셔론까지 지엇스오니 이 칙보시는 첨위들이 그리 아시옵”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안애리, 『식물학』, 야소교서원, 1913, 1쪽.)

33) 한명근(2015), 앞의 책, 111쪽.

3. 소설 형식의 문서선교 전도지 〈셋별전〉

그간 〈셋별전〉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을 근거로 하여 대한예수교서회에서 1905년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셋별전』 해제에서도 “1910년대부터 소위 ‘딱지본’으로 불리는 활자본 고전소설이 간행되어 유행을 하게 되고, 아울러 신소설이 등장하여 우리 소설 문학기회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작품은 이들보다 앞서거나 또는 동시대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⁴⁾라고 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작가 이인직³⁵⁾이 〈혈의 누〉³⁶⁾를 1906년에 『만세보』에 발표했는데 1905년에 출간된 『셋별전』이 있으니, 활자로 인쇄된 『셋별전』을 신소설이나 1910년대에 등장한 ‘딱지본’ 소설과 비교해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이해원의 연구에 따르면 미 의회도서관 자료 등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셋별전〉의 초기 출판 년도는 1899년이다.³⁷⁾ 〈셋별전〉이 1905년 이전에 출간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이 외에도 또 있다. 조선성교서회 문서선교 운동 중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감옥 도서관에 ‘옥중전도문고’를 설치한 것인데,³⁸⁾ 1903년 1월 17일부터 1904년 8월 31일까지 기록된 도서관 대출장부에 〈셋별전〉 대출 기록이 남아있다.³⁹⁾

34) 애니 베어드, 『셋별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 역, 숭실대학교출판국, 2014, 11쪽.

35)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3쪽.

36) 권영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재론』,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7~8쪽.

37) 아울러 〈장자노인론〉의 출판년도도 1906년이 아닌 1897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자노인론〉 관련 기록은 1989년 3월 발행된 《The Korean Repository》의 Literary Department 기사에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의 출간을 소개하는 글에 이어 등장한다. 기사에서는 〈장자노인론〉이 1897년에 출간되었고 애니 베어드가 저자이며, 4개의 삽화가 들어 있다고 했다.

38) 한명근(2015), 앞의 책, 106~107쪽.

〈셋별전〉이 1900년 이전에 창작되었다는 점은 우선 애니 베어드가 본격적인 교육선교를 위해 번역작업 등을 하기에 앞서 선교 초기부터 〈셋별전〉과 같은 짧은 소설형식 전도지를 활용하면서 문서선교를 진행했음을 보여주기에 의미가 있다. 〈셋별전〉은 여자아이를 위해 세운 외국인 학당에 다니다가 친척 아저씨 홍경대의 집에서 더부살이하게 된 소녀 셋별이가 자기를 희생하는 실천적 믿음을 통해 홍경대 집안과 그가 사는 마을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한 은혜(누가복음 9장 58절, 이사야서 53장 5절, 빌립보서 1장 29절), 세상 만물의 주인인 여호와와 사랑의 용서(시편 8편, 마태복음 11장 28절), 귀신(미신)에 얽매어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수의 권세와 보호하심(누가복음 4장 18-19절, 시편 23편),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누가복음 18장 16절, 이사야서 49장 10절), 현세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요한계시록 2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5-57절)이라는 메시지를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리한다.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에 맞게, 장황하지 않게 이야기를 구상하고 성경구절을 직접 인용하여 주제를 전달한 것이다. 비록 단조로운 사건 구성에 설교문과 유사하게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적은 수의 단어를 활용해서라도 전도지를 만들어 선교에 힘씀으로써 정신적 가뭄을 피하려 했던 애니 베어드식의 문서선교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셋별전〉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과 회심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난해한 독서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외국인 학당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을 갖게 된 10대 여자가 이 셋별이를 주인공으로 삼고, 셋별이가 만나 대화하는 인물들도 홍경대의

39) 유춘동,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의 〈옥중도서대출부(獄中圖書貸出簿)〉 연구」, 『서지학보』 40, 한국서지학회, 2012, 120~121쪽.

부인을 비롯한 동네 아낙들로 설정하여 일상 속에서 쉬운 말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셋별이와 여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여인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셋별이가 답하는 방식을 취한다.⁴⁰⁾

더러는 빨래한 것을 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 두어 사람만 남아 빨래한 것을 양지 곁에 널 때에 셋별에게 하는 말이,

“다시 이야기 하자,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셋별이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높은 사람 중에 제일 높으시지만, 당신 몸을 높이시지 아니하시고 낮고 죄 있는 백성 가운데에 계시고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참 이치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셨다.”

하니, 그 중에 한 여인이 또 묻는 말이,

“여편네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셨느냐?”

하니, 셋별이 대답하는 말이,

“사람 중에 여편네가 힘없고 약한 고로 예수께서 저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셨으니, 한 과부 된 사람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려 주시고, 일곱 귀신 들린 여편네 몸에서 귀신들을 다 내쫓아주시고, 계집아이나 아무든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불쌍하고 서러운 사람은 누구든지 위로하셨다.”

하니,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 당신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하니, 셋별이 대답하여 말하되,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떠나 계시기가 멀지 아니하다.”

하니, 듣는 사람이 또 묻는 말이,

40) 선행연구에서도 “작자의 역할은 두 인물(필자: 셋별과 김씨)의 대립에서 뿐만 아니라 동네 여인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야기 중간 중간에 동네 여인들과 셋별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것이 그것이다.”(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0쪽.)라고 대화를 활용한 기독교 전파 기능을 지적했다.

“어찌 우리들 가까이 계실 수가 있느냐?”

하니, 셋별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를 믿는 것밖에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줄을 알고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 마음에 계시면 환란을 받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잘못된 때에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겠다.”

하니, 듣는 사람이 한숨 쉬고 하는 말이,

“이상이 다 거짓말 아니면 좋구나.”⁴¹⁾

빨래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여성들이 가사 노동을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낯선 종교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⁴²⁾ 당대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여편네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 하셨느냐?”고 묻자 셋별이가 성경 속 다양한 사례를 들며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자 다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예수를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늘 가까이 계시는 예수를 전파하는 이 문답식 대화 장면은 ‘정보’와 ‘정서’가 적절하게 녹아들어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빨래터에서 여성들 간에 나는 대화라는 점에서 이 장면은 애니 베어드가 여성 선교사로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간명한 구원의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논변보다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유발하는 고통 속에서 깨

41)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20~21쪽.

42) 선행연구에서도 “이 소설의 작가 애니 베어드는 당시 대중들이 즐겨 읽는 독서물이 소설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기독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소설 형식을 활용하였다.”(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0쪽.)라고 하여 이 작품이 쉽게 쓰인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는 방식은 문서선교를 위한 애니 베어드의 전도지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조선 여성의 삶과 기독교 교리 전파를 다룬 <셋별전>의 주요 골자는 이후 베어드 부인의 저술들에서도 이어져, 『*Daybreak in Korea*』와 『고영규전』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⁴³⁾하기 때문이다. <셋별전>에서 활용한 문답식 대화 방법과 정서적 공감에 집중하는 태도는 조금씩 변형되면서 <셋별전> 이후 애니 베어드가 창작한 작품들에도 활용된다. <셋별전>과의 대비는 없었지만 『고영규전』의 문답식 대화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집중하며 작품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일련의 장치”로 “주인공이 품은 의심과 질문을 독자도 함께 하면서 작품을 읽어” 나가게 만드는 구성이라고 평가했다.⁴⁴⁾

애니 베어드 소설의 이러한 전개 방식은 기독교 교리를 다룬 개화기 소설 중 최병헌이 쓴 <성산명경> 같은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최병헌의 소설 <성산명경>과 애니 베어드의 소설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⁴⁵⁾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논자는 애니 베어드의 소설이 절대자의 지배를 인지한 인물의 ‘급격한 회심’의 모습을 그렸다면, 최병헌의 소설은 논리적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점진적 회심’의 모습을 담았다고 대비했다.⁴⁶⁾ 대화를 통한 상대방의 설복이 각각의 종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논변하여 설득하는 선교 방식이라면, 애니 베어드가 취한 문답의 방식은 종교에 대한 지식이 얇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설득해가는 ‘설

43) 김성연(2015), 앞의 논문, 271쪽.

44) 서신혜(2014), 앞의 논문, 148쪽.

45)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는 애니 베어드의 작품 『*Daybreak in Korea*』(1909)를 유정순이 번역하여 2006년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출간한 것이다.

46) 김인섭,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회심(回心)의 두 유형 - 최병헌의 <성산명경>과 애니 베어드의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를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13-2,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08, 29~42쪽(23~46).

명적 서사'에 해당하는 셈이다.⁴⁷⁾

애니 베어드는 <셋별전>이라는 전도문서를 창작하면서 서사성이 가미된 짧은 소설 형식을 취했고 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배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없는 10대 소녀 셋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순수한 어린 소녀의 눈과 입을 빌어 희생과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했다. <고영규전>이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먼저 회심해야 가정 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 고영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서사를 전개했고⁴⁸⁾, <부부의 모본>이 기독교 가정의 가족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을 말하기 위해 박명실 부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며⁴⁹⁾, 『*Daybreak in Korea*』가 미국 선교회 사람들에게 한국이 종교적으

47) 근대전환기 매체의 글쓰기 방식을 다룬 선행 연구에 따르면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근대전환기는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적 지식과 문화를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취사와 수용, 배제의 과정을 거치던 시기였고” 이때 널리 사용된 글쓰기 방식 중 하나가 문답체 설명문이었다. 그런데 정보 자체에 집중하던 초기 문답체 글쓰기와 달리 1908년 창간된 『소년』지의 경우 허구적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는 등 서사성을 가미한 설명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방식을 새롭게 모색했다고 한다.(문한별, 『잡지 『소년』 수록 설명문의 서사적 성격 - 근대전환기 학회지 수록 문답체 설명문과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60~164쪽.) 이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애니 베어드는 『소년』지가 취한 서사적 설명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설명적 서사 방식을 취하여 선교목적의 소설 <셋별전>을 창작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애니 베어드가 문답 혹은 설명적 서사의 글쓰기 방식을 취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당시 개신교 문서선교를 위해 번역, 편찬된 다수의 서적들이 문답서 형식을 택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당시 개신교 문서선교사업 일환으로 동아시아에서 출판된 서적들 중에는 『미이미교리문답』(1889), 『의경문답』(1893), 『진도입문문답』(1893) 등 다수의 문답체 교리서들이 있었다.(오순방, 『플랭클린 울링거의 韓譯本 『인가귀도』와 『의경문답』 연구』, 『중어중문학』 47, 한국중어중문학회, 2010, 223~224쪽 참조.) 그러나 교리 문답과는 또 다르게, ‘허구성을 가미한 소설 형식에 문답체를 접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대화’를 활용했다는 사실 적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애니 베어드의 선교 문서가 취한 글쓰기 방식을 비롯한 19세기 말 선교 문서들의 글쓰기가 이후 근대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서사적 설명’의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크다.

48) 서신혜(2014), 앞의 논문, 147쪽 참조.

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통 받는 여성 인물 보배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여러 면을 다양하게 포착했다면⁵⁰⁾, <셋별전>은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에 앞서 창작된 소설로서, 신앙의 황무지에 누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답을 풀어낸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해제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 대한 제국 시기의 혼란했던 정국 상황이나 사회, 종교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점”이라고 하며, “전란으로 인한 피해, 여성교육에 대한 견해, 천주교 기독교를 구분하려 했던 당대인들의 태도 등”을 알아낼 수 있어 “작품이 등장한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⁵¹⁾ 그런데 선교를 목표로 하는 전도 문서라는 관점에 좀 더 집중해서 <셋별전>을 바라보면 오늘날 연구자들이 관심가질 만한 부분인 전란으로 인한 피해나 여성 교육에 대한 당대인들의 견해, 천주교와 기독교의 구별 인식 등보다는 26면이라는 적은 분량에 이러한 서술을 담은 전도문서 창작자 애니 베어드의 의중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전란으로 인한 피해는 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데,⁵²⁾ 구체적인 시기나 전란명이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전란이 작중 인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작품 내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⁵³⁾ 다만 1900년대 이후 등장한 신소설의 특징 중 하나

49) 김경완(1995), 앞의 논문, 262쪽 참조.

50) 서신혜(2014), 앞의 논문, 143쪽 참조.

51)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0~11쪽.

52) “이 아이는 내 조카딸이니 저희 부모 살아계실 때에 학당에 두었더니 이제 난리가 나니 나라 일이 대단히 어지러워서 서울 사람이 시골로 피난하기에 내가 데리고 내려왔노라.”(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6쪽.)

53) <셋별전>이 1899년 창작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작품에서 언급한 전쟁은 1894-1895년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일 가능성이 크다.

로 자기 당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꼽는데,⁵⁴⁾ 신소설의 등장보다 앞서 자기 당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19세기 말 선교사의 작품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셋별전> 속의 전란 언급은 자기 당대에 벌어진 실제 사건을 선택하여 셋별의 부모와의 이별, 흥경대 집으로의 낙향이라는 조건을 마련한 하나의 배경 및 근거 설정의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교육에 관한 당대인의 견해 역시 <셋별전>만의 독창적인 서술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정도로만 서술되어 있다.⁵⁵⁾ 흥경대의 부인 김씨가 외국인 학당에 다니는 여성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와 유사하게 동네 여인들도 셋별이 외국인 학당⁵⁶⁾에 다녔다는 것을 다소 이상하게 여기며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 이때 전도문서로서의 측면에서 이러한 발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점은 여성 교육에 대한 당대인들의 부정적 견해보다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 학당이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소개하며 기독교의 교리인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계집아이의 도리, 수법, 지도 그리고 예수교 등을 배운다는 셋별의 말에 동네 여인들이 천주학이나 같은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자 셋별이 천

54) “전대 소설과 비교할 때 신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대를 취재(取材)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중략) 1900년대의 신소설은 예외가 없으리만큼 철저하게 자기 시대에 몰두하였다.”(권보드래(2014), 앞의 책, 172쪽.)

55) “학당에 두었던 말씀이 어떠하신 말이오리까? 계집아이 다니는 서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대가 좀 부끄러운 말로 대답하되, “저 아이 다이던 학당은 우리 대한 풍속대로 하는 데가 아니요, 외국 사람이 서울 와서 계집아이를 위하여 세운 학당이라.”하니, 김씨가 낮빛이 변하며 말하되, “외국 사람의 학당에 다녔단 말이 웬 말이오? 외국 사람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뇨? 거기서 우리 조선 풍속을 홍보는 것과 우리 위하는 것을 버리고 외국 사신 위하는 것이나 배울 것밖에 무엇이 있으리오?”(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6쪽.) 등과 같은 언급이 그것이다.

56) 작품이 창작된 시기를 고려하면 작품에서 언급한 “계집아이를 위하여” 서울에 세운 기독교 계열 외국인 학당은 1886년에 설립된 이화학당, 1887년에 설립된 정신여학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학이 아니라 예수교라고 정정하며 예수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식이다.⁵⁷⁾ 이러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신교에 기반을 둔 외국인 학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하고, 또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말하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 했던 애니 베어드의 목표는 묻고 답하는 질문 속에서뿐만 아니라 셋별의 ‘일상’을 취사선택하여 서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별이 김씨의 구박을 감내하며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은 집안일이다. 그리고 아울러 저녁이 되면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심심할 때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셋별이 저녁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누워 자기 전에 옆드려 하는 말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밤낮 아니 주무시고 저를 돌아보시는 줄을 아오니 어찌 감사하오리까? 제가 약하고 어리니 도와주심과 가르쳐 주심을 비웁니다. 어떻게 하여야 좋을는지 가르쳐 주옵시고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와 같이 어려운 것을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저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으니 이처럼 감히 가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줄 제가 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다하고 누워 자더라.⁵⁸⁾

노동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찬미⁵⁹⁾하는 셋별의 일상을 짧은 분량의 작

57) 외국인 학당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대화는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약 2면 분량의 대화는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7~20쪽에서 볼 수 있다.

58)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7쪽.

59) 소리를 가만히 하였으나, 한 이웃 여편네가 듣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셋별이 있는 방에 들어와 앉아 하는 말이, “네가 아까 하는 소리가 엄불도 아니요, 글 읽는 소리도 같지 아니한데 무엇이나?” 셋별이 대답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미하는 소리입니다” 하니, 그 사람이 또 묻기를, “예수교 믿는 사람이 하는 법이나?” 셋별이 옳다고 하니(애니 베어드(2014), 22쪽.)

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알려 주고 전도하기 위함이다.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찬미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기도가 무엇인지, 찬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섯별의 기도와 찬미를 모델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직접적인 문답을 통해, 또 일상 속의 신앙인다운 행위를 통해 홍경대 가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후, 병든 섯별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 후 홍경대가 섯별의 말과 행동에 감화되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제 막 신앙의 길로 들어선 홍경대가 하는 일이 기독교 관련 서적(문서)을 구입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것이다.

경대가 섯별의 말이 허사가 아닌 줄을 깨닫고 서울로 올라가서 전도교사를 찾아가 예수의 도리를 자세히 묻고, 섯별의 말을 비교하여 보니 추호도 어김이 없는지라.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을 마음이 간절하여 좋은 책을 많이 사 가지고 본 곳에 돌아와 집안 친척과 동네 친구들에게 간간히 도를 전하니, 주의 성신이 그들에게 은혜로 비치우사 경대의 말과 책을 보니 진실로 믿을 만한지라. 듣고 보는 사람 즉시 죄를 원통히 회개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회당을 설립하고 교사를 청하여 날마다 도리를 강론하고 섯별의 말을 유전하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니, 이것을 보면 주를 믿는 사람이 말을 많이 아니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여 견디고 참았으면 천당에 영생을 얻을 것을 분명히 알 것이요, 또한 중자가 되어 백 배나 결실할 것인 줄을 깨달을 터이옵기로 대강 기록하나이다.⁶⁰⁾

애니 베어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는 것, 기독교 교리를 잘 다룬 좋은 문서를 활용하여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환란이나 핍박을 견뎌 영생을 얻으라는

60)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31쪽.

당부로 소설을 마무리 한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문서라는 기본 속성을 놓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달하고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알려주며 전도의 방법까지 소설 형식을 빌어 제시함으로써 짧지만 구성적으로 알찬 문서선교를 위한 전도지 소설 <셋별전>을 창작한 것이다.

4. 결론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에는 살기등등한 태도로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빛에 둘러싸이며 눈이 멀게 된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핍박을 멈추고 나의 이름을 전하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후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이후 죽음에 준하는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셋별전> 속 셋별은 “눈이 좀 어두운”⁶¹⁾ 인물로 그려진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군식구가 싫은 홍경대의 아내 김 씨에게 더 구박을 받는다. 그러나 셋별이는 김 씨의 모든 구박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찬양한다.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던 셋별이는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홍경대 일가족의 병간호를 하다 자신이 오히려 병들어 죽게 된다.

셋별이 눈감고 가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

“죽음아, 네가 해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

61)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16쪽.

뇨? 죽음의 해는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하나님께 감사하옵나니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입음을 우리에게 주어 이김을 얻었나이다.”

하더니, 이윽고 갑자기 일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즐거이 말하되,

“이제부터는 어둠던 눈 보리라.”

하고, 그 말을 마치매 곧 누워 세상을 이별하고 영혼이 천당으로 들어가니라.⁶²⁾

셋별이 죽는 장면을 소설에서는 위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셋별전>에는 셋별이가 눈이 어두운 아이로 그려지는 이유, 또 죽음의 순간에 눈이 밝아 질 것이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긴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눈이 어두운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사울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 즉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수를 전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소명을 받아들인 바울과 같은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소설 첫 머리부터 셋별이는 믿음이 있는 상태로 그려지지만 셋별이를 눈이 어두운 존재로 설정한 까닭은, 셋별이의 처지에 자신을 이입하여 <셋별전>을 읽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애니 베어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학적 재능이 있고 성실하게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으며 문학에 관심이 깊었다 하더라도 한국어로 모든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써내려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한글을 사용하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지식이 얇은 독자들에게는 간명하면서도 흥미롭게 신앙적 주제를 전달하되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야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애니 베어드가 <셋별전>을 쓰면서 남긴 기록이나 당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고 남긴 기록들을

62) 애니 베어드(2014), 앞의 책, 30쪽.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어서 작품이 창작되었던 직접적 배경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막 개신교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국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온 선교사로서, 특히 가정선교, 문서선교, 교육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로서 애니 베어드가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선교방편 중 하나가 글을 쓰는 것이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인들, 그 중에도 셋별이처럼 순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 선교사로서 애니 베어드가 당시 편하게 접할 수 있었던 한국의 여성을 모델로 하여, 신앙의 불모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바울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셋별전>을 통해 전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애니 베어드, 『식별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 역,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4, 1~68쪽.
- 애니 베어드, 『장자로인론』, 한명근 외 역,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5, 1~46쪽.
- 애니 베어드,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 유정순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6, 1~191쪽.
- 애니 베어드,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 성신형 외 역, 도서출판 선인, 2019, 1~262쪽.
- 안애리, 『식물학』, 야소교서원, 1913, 1~249쪽.
- 소재영, 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1~257쪽.
- Literary Department(1898년 3월), 《The Korean Repository》, 2020. 12. 1, <http://anthony.sogang.ac.kr/Repository/index.html>.
- W.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신복룡 옮김, 평민사, 1985, 1~644쪽.
-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1~391쪽.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1~1091쪽.
-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새물결플러스, 2020, 1~767쪽.
- 윌리엄 베어드, 『숭실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일기』, 이상규 옮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1~199쪽.
- 윌리엄 베어드, 『신학지남으로 보는 윌리엄 베어드의 신학세계』, 장경남 역,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4, 1~486쪽.
- 윌리엄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1, 김용진 옮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1~437쪽.
- 윌리엄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2, 김용진 옮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1~478쪽.
-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1 조직·성장과 수난』, 대한성서공회, 1993, 1~499쪽.
-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인화 옮김, 살림, 1994, 1~603쪽.
- 한명근,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예수교서회의 문서운동』(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도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5,

1~155쪽.

- 곽승숙, 『애니 베어드 신소설 연구 -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39~159쪽.
- 권영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재론』,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0, 5~40쪽.
- 김경완, 『고영규전 연구』, 『온지논총』 1, 온지학회, 1995, 241~263쪽.
- 김사랑,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1864-1916)의 선교사역과 음악』, 『음악·樂·學』, 한국음악학학회, 2019, 61~95쪽.
- 김성연, 『근대초기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253~290쪽.
- 김인섭,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회심(回心)의 두 유형 - 최병헌의 <성산명경>과 애니 베어드의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를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13-2,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08, 23~46쪽.
- 도리스 해즈, 『기독교 문서는 전도의 방편』, 『새가정』 11-6, 새가정사, 1964, 20~22쪽.
- 劉惠瑩, 『기독교와 한국사상의 근대성-고영규전에 나타난 결혼관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221~245쪽.
- 문한별, 『잡지 『소년』 수록 설명문의 서사적 성격 - 근대전환기 학회지 수록 문답체 설명문과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59~181쪽.
- 민대홍, 『기독교의 문화 변혁으로 본 애니 베어드의 소설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212쪽.
- 박보경,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2017, 283~308쪽.
- 박삼열, 『내한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의 조선사회에 대한 인식과 선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57~89쪽.
- 변창욱,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방법과 교육선교 정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1, 한국기독교학회, 2011, 317~340쪽.
- 서신혜, 『<고영규전>의 서술 방식과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35~160쪽.
- 성신형,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선교에 대한 연구』, 『복음과 선교』 36, 한국복음주의선교사학회, 2016, 51~82쪽.

- 오순방, 『플랭클린 올링거의 韓譯本 『인가귀도』와 『의경문답』 연구』, 『중어중문학』 47, 한국중어중문학회, 2010, 223~259쪽.
- 유춘동,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의 <옥중도서대출부(獄中圖書貸出簿)> 연구』, 『서지학보』 40, 한국서지학회, 2012, 105~125쪽.
- 이교은,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역사(1890-1919) 재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5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89~131쪽.
- 이길연, 『근대적 자아의 확립과 가정상의 모색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04, 304~325쪽.
- 이명직, 『독서와 문서전도』, 『활천』 9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30, 2~3쪽.
-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1880-1900)』, 『한국기독교와 역사』 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45~177쪽.
- 이선호 외,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지침서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7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3, 275~303쪽.
- 이 숙, 『애니 베어드의 한국어학습서 Fifty Helps의 내용 연구』, 『어문론총』 8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39~71쪽.
- 이현주, 『보배와 이화 : 애니 베어드의 『한국의 새벽』과 윌리엄 노블의 『이화: 한국 이야기』에 나타난 두 여주인공 비교』, 『신학과 세계』 62, 감리교신학대학교, 2008, 472~505쪽.
- 이혜원,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대한 재 고찰: 1890-1900년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55, 한국교회사학회, 2020, 499~535쪽.
- 이혜정, 『배위량 선교사가 지역사회에 끼친 사회적 영향』, 『신학과 목회』 49, 영남신학대학교, 2018, 359~383쪽.
- 장경남 외, 『숭실 설립사 윌리엄 베어드의 일기 연구』, 『숭실사학』 43, 숭실사학회, 2019, 129~153쪽.
- 조경현, 『한국 초기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의 뿌리』, 『교회사학』 6-1, 한국기독교교회사학회, 2007, 205~260쪽.
- 홍승표, 『동아시아 기독교 출판의 제 관계와 동향 -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 개신교 출판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9, 한국교회사학회, 2018, 117~159쪽.

ABSTRACT

Annie Baird's Interest in Literary Missio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SaitPyuljeon

Hur, Soon-woo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y of Annie Baird, who visited Korea in 1891 and committed herself to missionary work in the country before her death in 1916, and her interest in literary mission expressed in early mission pamphlets and the fiction titled *SaitPyuljeon*. Annie Baird arrived in Korea in 1891 as a missionary of North Presbyterian Church. She carried out her missionary work in Busan and Daegu until 1897, when she moved to Pyongyang and continued proselytizing efforts. In particular, her work focused on literary and educational mission, and her perception and interest in this regard is carefully studied in Chapter 2.

Annie Baird authored her Korean novel, *SaitPyuljeon*, well before she lived in the country for 10 years. The story is about a young girl name SaiitPyul(Morning Star for Korean), who was brave and devout enough to sacrifice herself to sow the seeds of faith in a religiously barren land. The fiction, as part of a mission pamphlet, takes the form of question and answer, which helps readers understand Christian doctrine easily. It also depicts day-to-day situations that are familiar to potential readers, thereby helping them easily relate to the story. In chapter 3, the fiction is broken down into two aspects, i.e. writing techniques and the contents, and analyzed separately. Thus far, *SaitPyuljeon*, written by Baird in 1899, was largely regarded simply as a preliminary work anticipating later works created by Annie Baird, including *Daybreak in Korea, Go Young-Gyujeon*. However, the fiction epitomizes her effort to create documents for missionary work that has far-reaching impact. Also, the story should be appreciated in its own right as an early-day missionary work document, especially given that it presents key

Christian principles and the model Christian in a concise as well as detailed fashion.

Key Words missionary, literary mission, Annie Baird, *SaitPyuljeon*, a mission pamphlet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